

정원상 범원직 국어 해설

※ [1. ~ 4.] (가)~(다)의 주제

(가) 망국의 비애(悲哀)

(나) 자유의 확산과 그 기세

(다) 극한 상황에 대한 초극 의지

1. [정답] ②

[풀이] (가)~(다) 모두 역사적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가)는 국권 상실과 함께 몰락한 조선 왕조의 퇴락한 고궁을 보면서 망국(亡國)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종 소리’를 의인화해서 오랜 인종 끝에 역사의 질곡을 박차고 나가는 시인의 자유를 향한 비상과 신념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는 일제 치하의 극한 현실 상황에서도 초극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오답]

① : (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④ :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답] ③

[풀이] (나) 시 <종소리>의 주제는 ‘자유의 확산과 그 기세’이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횡포(‘먹구름’)에 저항하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답] ③

[풀이] ⑦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정신적으로 초극하는 행위이다. 결국,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면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의 구절 역시 현실 초극을 위한 내면의 수련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적 의미가 유사하다.

4. [정답] ④

[풀이] ‘내재적 관점’은 ‘화자, 청자, 구조, 구성 요소, 표현 방법, 이미지, 운율, 시어 자체’를 분석하는 감상 방법이다. 다른 말로 ‘절대론적, 구조주의, 형식주의’라고도 한다. ④번은 시어 자체에 대한 발상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오답]

①은 ‘작가(=표현론적)’, ②는 ‘시대 상황(=반영론적)’, ③은 ‘독자(=효용론적)’와 관련되므로 외재적 관점이다.

5. [정답] ①

[풀이] 허균의 <홍길동전>의 장면에서는 관리들의 부패를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적서 차별하는 현실이 강하게 드러나 있을 뿐이다.

[오답]

②번은 ⑦ 부분에서 잘 드러나며, ③번은 마지막 부분에 ‘무녀’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6. [정답] ④

[풀이] ‘저어’는 ‘저어하다’의 어근이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는 의미이다. 같은 의미로, ‘정다, 저흘다’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어하며 노심초사했다.’의 형태로 사용한다.

7. [정답] ③

[풀이] ㉠에는 ‘출장입상(出將入相),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③번 역시 ‘장수의 씩씩한 기상’이 잘 나타난 남이 장군의 시조이다.

[오답]

① : ‘변하지 않는 절개’를 주제로 한 박팽년의 시조이다.

② : ‘수양 대군의 횡포에 대한 비판과 우국의 정’을 주제로 한 유옹부의 시조이다.

④ : ‘천성을 지키는 삶’을 주제로 한 변계량의 시조이다.

8. [정답] ①

[풀이] ㉡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 질책하는 말이다. ㉡ 앞에서도 ‘그 말을 짐작 하나’라고 했고, 뒤에서도 ‘그 뜻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할까 저어’라고 했다. 문맥을 고려하면 알 수 있다.

9. [정답] ②

[풀이] 김유정의 소설 <봄·봄>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은 맞다. 하지만 ‘객관적 신뢰감’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에만 해당한다. 이 소설은 서술자가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10. [정답] ④

[풀이] 친구 뭉태는 ‘나’가 장인에게 당하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해 조언을 해 준다. ‘사리를 밝힐 줄 아는 것’은 맞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11. [정답] ③

[풀이] <봄·봄>은 시간상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간의 순서에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면 ‘(나) 점순이의 1차 충동질(그저께) → (가) 장인과 1차 싸움

(그저께) → (다) 구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려 감(어제 낮) → (라) 별 성과 없이 돌아온 후 풍태에게 질책 당함(어젯 밤) → (마) 점순이의 2차 충동질(오늘 아침) → (사) 장인과 2차 싸움, 점순이가 장인의 편을 들자 넋을 잃음 → (바) 장인의 회유에 일하러 감'의 순서로 되어 있다.

12. [정답] ①

[풀이] 이 소설이 주는 해학성은 적극적인 점순이와 어리숙한 ‘나’ 때문이다. 점순이는 ‘나’의 혼인을 원하지만 상황에 따라 처신하고 있다. 시집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은 아버지의 편을 들 수밖에 없기에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13. [정답] ④

[풀이] 김유정은 고유어를 즐겨 사용하는 작가이므로 어휘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온다. ‘되알지게, 찌다우, 혹닥이다, 불랴살야’ 등은 모두 뜻이 맞는 단어이다.

[오답] ⑦‘내외’는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피함’을 뜻하고, ⑧‘고대’는 ‘이제 막. 바로 곧’을 뜻하며, ⑨‘귀정(歸正)’은 ‘그릇된 일이 바른 길로 돌아옴’의 뜻이다. 그리고 ⑩‘마슬’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을 의미하는 ‘마을’의 방언이며, ⑪‘되우’는 ‘되게. 아주 몹시’의 뜻이며, ⑫‘솔개미’는 ‘솔개’의 방언이다.

14. [정답] ②

[풀이] (나)의 주제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이 아니다. 중장은 근경을, 종장은 원경을 표현하여 배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답]

① : ‘촉(燭)불이 눈물을 흘린다’고 무생물을 생물로 치환해 표현했다.

③ : ‘동짓달 긴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허리를 베어 이불 안에 넣겠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15. [정답] ①

[풀이] 임(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⑦‘촉(燭)불’에 감정 이입해 표현하며 애상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므로 ⑦과 이질적이다.

16. [정답] ④

[풀이] (나)와 (라)는 자연에서 지내는 소박한 즐거움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나)의 주제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안빈낙도(安貧樂道)’이고, (라)의 주제는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이다.

17. [정답] ②

[풀이] (가)와 (다)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가)의 주제는 ‘임(단종)과 이별한 슬픔’이고, (다)의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다.

18. [정답] ①

[풀이] 최초의 가사인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은 ‘봄날의 경치에 대한 완상(玩賞)과 안빈낙도’를 주제로 한다. 따라서 ‘계절’은 있지만 ‘계절의 변화’는 없다.

[오답]

④ : 화자의 시선이 좁은 공간인 ‘수간모옥’에서 점차 ‘들판’, ‘시냇가’, ‘봉두(峰頭)’와 같이 넓은 공간으로 옮겨지면서 확대되고 있다.

19. [정답] ①

[풀이] ⑦ 부분에서 “세속에 묻혀 사는 분들이여, 이 나의 풍류 생활이 어떠한가?”라고 묻고 있다. 번잡한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대조를 통해 세속의 무리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② : 물아일체(物我一體)이므로, 흥(興)겨움이 같다.

③, ④ : 선공후사(先公後私)나 위정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20. [정답] ①

[풀이] <상춘곡>과 ①번의 시조는 모두 ‘자연 속에서 누리는 풍류와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② : 윤선도가 유배지에서 쓴 연시조 <견회요(遺懷謠)>의 일부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려는 소신과 강직한 의지’를 주제로 한다.

③ : 정철의 연시조 <훈민가(訓民歌)>의 일부로, ‘농사일에서의 근면과 상부상조 권장’을 주제로 한다.

④ : ‘노래를 불러 시름을 해소하고자 함’이 주제이다.

21. [정답] ③

[풀이] ⑧‘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는 실제로 ‘내가 부귀공명을 꺼린다’는 뜻으로, 도치적 발상, 주객전도된 표현이다. 그런데 ③번은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를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계가 없다.

[오답] ①번에는 ‘빈 병이 나를 쳐다본다’, ②번에는 ‘영롱 벽계와 수성 제조가 나와 이별을 안타까워한다’, ④번에는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고 하여 도치적 발상이 나타나 있다.

22. [정답] ②

[풀이] ‘꺽정이처럼 울부짖는 모습’은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농민의 모습이다. 그러나 자각에 까지 이른 농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나머지는 <보기>의 내용과 시가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23. [정답] ④

[풀이] 화자는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단호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목놓아 우는 것’은 해방감에 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역사 현실 속에서 비애로 얼룩진 청춘에 대한 탄식을 의미한다.

[참고] 오장환, <The Last Train>(1938)

주제 : 부정적 현실에 대한 슬픔과 비애.

24. [정답] ①

[풀이] 1연의 ‘하늘’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하늘과 푸른 산뿐이로다’라고 표현하여 ‘부정적 현실에서 화자의 고독하고 적막한 상황’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시에서 ‘하늘’은 화자에게 의지가 되는 절대적 존재일 수 있지만 이 시에서는 ‘슬픈 구도’에 있는 하늘일 뿐이다.

[참고] 신석정, <슬픈 구도>

주제 :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절망

25. [정답] ②

[풀이] ‘전통 음악의 대중화 방안’을 주제로 한 글의 일부이다. 서론에서 전통 음악이 서구 음악에 접목되어 ‘낯선 음악’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는 ‘전통 음악이 소외되게 된 배경’, ‘우리나라 음악 교육의 실태’, ‘음악에 대한 청소년의 기호’ 등에 대해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하지만 ‘서양 음악에 대한 이해 증진’은 전통 음악을 대중화하는 내용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상반된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원상 교수님 해설 (공수모)